■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99-638.
http://doi.org/10.17948/kcs.2019..84.599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충동과 노스탤지어 연구*
—1930년대 후반기의 백석과 이용악 시를 중심으로—

차성환(車成煥)**

목 차

1. 식민지인의 유토피아 충동과 실재에의 열정
2.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세상'으로부터 '고향'을 보존하기 : 백석
3. 성찰적 노스탤지어와 '고향'에서 '빛나는 영토'로 나아가기 : 이용악
4. 유토피아적 해방의 잠재성

국문초록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는 유토피아 충동에 의해 발현된, '진정한 고향'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실재에의 열정이 있다. 백석의 시가 유년의 상실된 고향과 '실재'로서의 '진정한 고향'이 일치한다면, 이용악의 시는 그 둘의 불일치에 의해서 또 다른 '진정한 고향'을 상정해야 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생긴다.

백석은 유토피아적 시공간으로서 북방의 토속마을을 평북 방언이라는 언어적 질감으로 구축하고 고향이 주는 충일감을 현실에 불러들이는 시도를 반복한다. 상실된 고향은 복원적 노스탤지어라는 정념을 통해 초월적인 이상향의 시공간으로 자리매김 된

* 이 논문은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1023482).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다. 그의 유랑은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고향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신의 정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상실된 고향은 초월적 이상향인 '실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적 주체는 그 공백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상실된 고향과 타락한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킴으로써 '나'가 간직한 '진정한 고향'의 실재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는 새로운 고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탈향과 귀향을 반복한다. 탈향과 귀향의 반복을 통해 시적 주체는 고향이 불모지와 같이 황폐한 장소임을 확인하고 떠나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상실된 고향은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정념 속에서 극복해야 할 장소이며 새로운 고향을 도모하기 위해 떠나야 할 과거로 확정된다. 그의 유랑은 상실된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고향을 찾기 위함이다. 이용악은 생물학적인 고향 대신에 과거에 잃어버린 정신적인 고향 '우라지오'에서 진정한 고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식민지 현실에서 그것의 실현을 꿈꾼다. 이용악의 시에서 과거에 잃어버린 '진정한 고향'의 가능성을 미래에 투영하는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에서 '빛나는 영토'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유토피아 충동, 노스탤지어, 복원적 노스탤지어, 성찰적 노스탤지어, 고향, 실재에의 열정, 백석, 이용악.

1. 식민지인의 유토피아 충동과 실재에의 열정

상실된 고향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노스탤지어[1]는 식민지 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다. 특히 국권회복이 점점 희박해가는 1930년대 후반에는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의 근대화, 유이민 현상 등과 맞물리면서

1)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향수'의 개념에는 근대 이전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 태어난 곳에 대한(특히 인간 기원의 공간으로서의 가족으로 수렴되는) 그리움으로서의 '鄕愁'라는 용법과 관습 위에 서구에서 근대적 시공간의 발견 이후 새롭게 창안된 감각으로서의 'Nostalgia'라는 용법과 관습이 더해져 있다. 19세기 이후 Nostalgia는 '고향'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사람, 자연 등을 그 대상으로 삼거나, 군인, 항해자, 이주자 등의 특정인을 초월해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감정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서로 간주되었다. 오태영, 「'향수(鄕愁)'의 크로노토프—1930년대 후반 향수의 표상과 유통」, 『한국어문학연구』 제49집, 동악어문학회, 2007, 208-213면 참조.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향수'와 유교문화권에서의 '鄕愁'가 아닌, 근대 이후의 상실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Nostalgi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Nostalgia'는 식민지 근대를 통해 발견되는 '고향'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며 백석과 이용악의 시를 분석할 때 이론적 확장성을 갖는다.

'고향 상실감'[2]은 시대의 보편적 정서로 등장한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는 상실된 고향을 중심으로 한 시적 주체의 자기 서사가 일관되게 구현되어 있다. 이들의 시는 당대의 향토/향수 담론의 영향 아래에서 시인 자신의 노스탤지어가 발현된 텍스트이다. 백석과 이용악 시에 나타난 노스탤지어는 식민지의 억압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시 텍스트에 상상적 형태로라도 그려내려고 하는 '유토피아 충동'[3]에 기인한다. 1930년대 후반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오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근대 세계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이중의 질곡에 처한 현실 속에서, 백석의 시가 북방의 토속적 고향인 '정주'를 유토피아로 설정했다면 이용악의 시는 현실과 과거의 고향 어디에도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미래에 도래할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열어놓는다.

'유토피아(Utopia)'라는 용어는 1516년 토마스 모어가 당시 문명의 폐해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자연 상태로 회귀해야 하는 곳으로 묘사한 상상의 섬을 지칭하면서 생겨났으며 일반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사회'를 뜻한다.[4] 문학 장르에서 유토피아는 부조

---

2) 김종철은 1930년대 한국시의 두드러진 문학적 징후의 하나로 대부분의 시인이 극심한 고향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김종철, 「30년대의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11면 참조.

3) 프레드릭 제임슨은 모든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텍스트들에는 현실의 모순을 상상적 해결의 형태로 은폐하고 왜곡된 형태로 발현시키는 이데올로기 봉쇄의 전략이 작동한다고 보고 이를 유토피아 충동으로 명명하고 있다. William C. Dowling, 곽원석 역, 『『정치적 무의식』을 위한 서설』, 월인, 2000, 97-118면 참조.

4) 임철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빌려 유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토머스 모어에 의해 묘사된 상상의 섬으로서, 이곳에서 주민들은 완전한 사회·정치·법률 제도를 누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위된 뜻으로 유토피아는 현실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지의 국가 또는 지방을 지칭하게 되었다. 둘째 유토피아는 정치·법률·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치기획을 뜻하고 있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2009b, 17-18면. 유토피아는 통상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 사회'를 일컫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토머스 모어가 'Utopia'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eutopia'(the good place)와 'outopia'(no place)에서 의도적으로 모음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Ruth Levitas, *The Concept of Utopia*, New York: Philip Allan, 1990, pp.2-3; 손철성,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 철학과현실사, 2003, 15면에서 재인용 참조.

리한 현실 너머의 이상향으로서 현재 주체의 욕망에 의해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초월적 공간이거나 혹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상향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5] 유토피아는 시 텍스트에서 어떤 표상으로 출현하느냐, 혹은 어떻게 은폐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토피아는 상실된 고향(실현 불가능한 초월적 지점)이라는 표상으로 출현하는 경우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돌아가고 싶은 과거지향적 성향을 띠기도 하지만, 고향과 현실 어디에도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의지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 즉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를 도피 유토피아로, 후자를 재건 유토피아로 부를 수 있다.[6] '유토피아 충동'이 식민지 시기의 시 텍스트에서 도피 유토피아와 재건 유토피아로 나타난다고 할 때, 되돌아갈 수 없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노스탤지어 또한 그 정념의 양상이 다르게 발현된다.

노스탤지어(nostalgia)는 nostos라는 귀향(return home)과 algia라는 동

---

5) 사전트는 유토피아니즘을 '사회적 꿈꾸기'로 지칭하면서 '유토피아니즘의 세 얼굴'로 문학적 유토피아(literary utopia), 유토피아적 실천(utopian practice), 유토피아 사회이론(utopian social theory)을 들고 있다. 그는 문학적 유토피아에 대해 "작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원칙에 따라 사회정치적 제도, 규범, 개인적 관계가 조직되는 유사-인간 공동체를 언어적으로 구축한 것"이라는 문학이론가 다르코 수빈(Darko Suvin)의 정의와 함께, "정상적인 시공간 안에서 꽤 상세히 묘사되는 실재하지 않는 사회로서 동시대 독자들에게 자신들이 사는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곳으로 읽히도록 의도된 장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Lyman Tower Sargent,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교유서가, 2018, 15-17면.

6) Lewis Mumford, 박홍규 역, 『유토피아 이야기』, 텍스트, 2010, 336면. 멈포드의 도피 유토피아와 재건 유토피아는 만하임이 말한 절대적 유토피아와 상대적 유토피아와 유사한 개념이다. Karl Mannheim,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2000, 424면 참조. 손미영은 루이스 멈포드의 '도피유토피아'와 '재건유토피아', 만하임의 '절대적 유토피아'와 '상대적 유토피아'는 더럽혀진 현실로부터 도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재건하려 하느냐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분으로써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낭만주의적 태도는 도피유토피아를 꿈꾸며, 리얼리즘적 태도는 재건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미영, 「백석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학학회, 2012, 247-248면 참조. 같은 관점으로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에서 추상적 유토피아와 구체적 유토피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백석과 이용악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충동과 노스탤지어를 설명할 때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

경(longing)을 어원으로 하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노스탤지어는 상실과 실향의 감정이지만 또한 자신의 환상과 함께하는 연애 감정(romance)이기도 하다.[7] 다른 한편으로 노스탤지어는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의 귀환하고자 하는 대상의 증발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 즉 '대상이 없는 비애' 또는 무조건 귀환하고자 하는 귀소본능인 '욕망을 위한 욕망'"[8]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잃어버린 과거의 고향으로의 귀환 불가능성 자체가 노스탤지어의 기본 토대가 된다.

스베틀라나 뵈임은 노스탤지어를 복원적(restorative) 노스탤지어와 성찰적(reflective) 노스탤지어로 구분하면서, 성찰적 노스탤지어에는 혁명에의 열망(longing)과 전통에의 소속(belonging)이라는 양가적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9] 노스탤지어가 "뒤를 향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한 앞으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10]는 말에 주목한다면, 노스탤지어는 지금은 되돌아갈 수 없는 상실된 과거의 고향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이 가지고 있던 전

---

7)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xiii. 임철규는 노스탤지어의 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1688년에 스위스 의사 호퍼(johannes hofer)가 고국을 떠나 독일에 유학하고 있던 스위스의 의학도나, 타국의 전쟁에 참전한 용병・선원・노예가 깊이 앓고 있는 병증에 주목하고, 그들의 증상을 노스탤지어라고 명명했다. 호퍼는 '귀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nostos)와 '병'과 '고통'을 의미하는 알고스(algos)를 합성시켜 노스탤지어(nostalgia)로 명명했던 것이다. 임철규, 『귀환』, 한길사, 2009a, 13면 참조.

8) Susan Stewart, *on Longing: Narratives of the Miniature, the Gigantic, the Souvenir, the Collection*, Durham: Duke UP, 1993, ix; 김광기, 「멜랑콜리, 노스탤지어, 그리고 고향」, 『사회와이론』 통권 제23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180면에서 재인용.

9) Svetlana Boym, op. cit, xvii 참조. 참고로 김철은 뵈임의 'restorative nostalgia'와 'reflective nostalgia'를 각각 회고적/반성적 노스탤지어로, 김홍중은 회복적/성찰적 노스탤지어로, 김보덕은 복고적/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김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탤지어의 시공(時空)」,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김홍중, 「성찰적 노스탤지어」, 『사회와이론』 통권 제2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33-76면; 김보덕, 「박정희 시기 재현 영화가 드러내는 향수의 욕망」, 『문화연구』 제1권 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12, 117-150면. 이 글은 백석의 시가 상실된 고향을 현실에 원래대로 회복하고 복구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따른 정념을 복원적(復原的, restorative) 노스탤지어로, 이용악의 시는 고향 상실의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핀다는 의미에서 성찰적(省察的, reflective) 노스탤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0) Svetlana Boym, op. cit, xvi.

통적인 가치들을 기억하고 환기시키면서 모순된 현실에 반영한다면 실현가능한 또 다른 고향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시 텍스트에 은폐되어 있는 유토피아 충동은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도피-절대적 유토피아와, 현실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재건-상대적 유토피아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토피아 충동이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양상의 이면에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정념인 노스탤지어가 내재해 있다.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이미 사라진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성찰적 노스탤지어로 나누어진다.[11]

노스탤지어는 "상징적으로는 고향, 시간적으로는 과거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는 실재에 대한 열망이지만, 오직 이 고향과 과거와 실재와 '상상적으로만' 만나는 한에서 실재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12]한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서 상실된 고향은 '실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주체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에서 파편화된 자신의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진정한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고향 즉, 실제 고향이 아닌 주체의 욕망에 의

11)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대상에 대한 정념으로서 멜랑콜리와 애도의 매커니즘과 유사한 심리적 작동기제를 보여준다. 즉 잃어버린 과거의 고향을 그대로 복원하고 회상하고자 하는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상실된 대상에 정신적·물질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계속 투여되는 멜랑콜리와 연관된다면, 과거의 고향이 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현실에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운동성을 보여주는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리비도를 철회하여 새로운 대상(실현가능한 유토피아)에 전위(轉位)시키는 애도의 경제학과 닮아있다. 식민지 시에 나타난 노스탤지어와 멜랑콜리/애도의 관계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차성환, 『멜랑콜리와 애도의 시학-백석·이용악·박용철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18.

12) 김홍중, 「몽상공간론 :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06, 141면. 김홍중은 알랭 바디우의 개념인 '실재에 대한 열정'에 대해 "상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이미지와 언어에 포획되지 않은 '리얼'한 것에 대한 열망"이며 "그것은 모든 사물이나 기호가 실재와 무관한 자율적이고 환상적인 시뮬라크르로 변화한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열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의 골목길 풍경이 주는 사회심리학적 효과인 노스탤지어의 구조에는 이러한 '실재에 대한 열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고향은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직 상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밖에는 전유할 수 없는 어떤 실재(rèel)의 차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김홍중, 같은 책, 113-141면 참조.

해 상상적으로 구성된 고향이다. 이들의 시에서 상실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안온함을 느끼는 노스탤지어는 실재의 효과로써 나타나는 공동체적 충일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이자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공간을 꿈꾸는 것은 유토피아 충동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고향'을 실현시키려는 실재에의 열정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고향'을 과거의 상실된 북방의 토속마을 정주에서 발견한 백석 시의 주된 정념이 복원적 노스탤지어라면, 척박한 고향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진정한 고향'을 도래할 미래에서 찾고자 하는 암묵적인 의지를 가진 이용악의 시에는 성찰적 노스탤지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스탤지어는 유토피아 충동에 의해 1930년대 후반 식민지라는 특수한 억압적 현실에서 나타난 정념이다. 백석과 이용악 시에 나타난 고향은 실제 고향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상된 고향 즉, "이미 있던 것을 상실한, 그래서 회복되고 재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환되는 상상적 기표"[13]이다. 그것은 고향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고향이 아니며 주체의 욕망에 의해 기억을 재구성하여 구축한 가상의 시공간이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 나타난 고향은 이들 시인이 가진, 상실된 고향에 대한 정념 곧 노스탤지어에 기인한다. 실제 시인의 생물학적 고향에 의해서 노스탤지어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스탤지어를 통해 상상적으로 구성된 고향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글은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서 실재에 대한 열정인 노스탤지어가 가진 의미와 차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14]

2.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세상'으로부터 '고향'을 보존하기 : 백석

백석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는 노스탤지어의 대상인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향'[15]과 동일한 구조적 위치를 가진다. 유

13) 이기성,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탤지어」,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294면.

14) 이 글은 『다시 읽는 백석 시』, 현대시비평연구회 편, 소명출판, 2014와 『이용악 전집』, 곽효환·이경수·이현승 편, 소명출판, 2015를 기본 텍스트로 한다.

토피아가 실재하지 않는 상상적인 시공간으로서 도달불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노스탤지어 또한 "귀환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욕망"[16]인 것이다. 이때의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을 상상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주체에게 현실의 결핍을 잊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맛보게 한다. 백석은 초기 시세계에서 고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전경화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그것은 "쾌락원칙이 지배하던 유아기와 그 유아기의 소재지인 고향이라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의 토로요 그 온전한 복원의 호소"[17]이다.

백석이 『사슴』 시집을 통해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토속적 고향을 상상적으로 구현한 것은 복원적 노스탤지어에 기인한다. 백석 시의 시적 주체는 자기 정체성의 뿌리인 근원적 고향에 대한 강한 귀속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과거의 지점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욕망을 지닌다. 그러나 이 고향은 실재의 재현으로서, 실제 고향이 아닌 주체에 의해 사후적으로 상상된/재현된 고향이다. 백석이 평북 정주의 방언이 가진 언어적 질감으로 구축한 시집 『사슴』은 그 자체로 상실된 고향을 시 텍스트 안에서 근원적이고 충일한 세계로 구현하려는 시도이자 기획으로 드러난다.[18] 물론 『사슴』에는 가족의 해체와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女僧」, 「修羅」, 「八院」 등)도 있지만 시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연 북방의 토속 마을을 그리고 있는 시편(「가즈랑집」, 「여우난곬族」, 「古夜」, 「오리 망아지 토끼」, 「오금덩이라는곧」, 「三防」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편은 유년 화자와 평북 방언을 활용해서 고향의 풍경과 풍

15) Svetlana Boym, op. cit, xiii.
16) 임철규, 앞의 책, 2009a, 16면.
17) 유종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234면.
18) 『사슴』, 선광인쇄주식회사, 1936에는 '사슴'이라는 제목의 시나 시어가 없으며 백석 시 전편에서 '사슴'이 쓰인 경우는 「北方에서」("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가 유일하다. 이 시에서 '사슴'은 자신과 민족의 근원적 고향인 '北方'에 속한 동물 중 하나로 등장한다. '사슴'은 동양 문화권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진다. 백석은 시집이 담고 있는 북방의 토속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혹은 그러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자신)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슴'을 제목으로 내세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사슴』을 출간한 후 백석이 평소 경성에서 같이 어울렸던 최정희, 노천명, 모윤숙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를 '사슴', '白사슴', '사슴군'이라고 호칭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노천명의 시집 『산호림』(1938.1)에 수록된 대표작 「사슴」("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 산을 바라본다")은 백석 시집과의 영향관계를 상상해볼 수 있게 한다. 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북스, 2014, 177-183면 참조.

속, 갖가지 음식들, 명절 풍습, 민간신앙, 유년의 일화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성인 화자가 과거에 상실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당대 여타 시인들의 고향 시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북방의 토속적인 고향 마을을 하나의 근원적이고 충일한 세계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슴』을 두고 "고향을 찾은 느낌에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뛰놀았다"[19]는 당시 문단의 반응에서 보듯이 "백석이 『사슴』에서 복원하고자 한 북방공간은 이상적 시원의 공간, 즉 그가 희구하는 유토피아이다. 그는 『사슴』에서 유년의 기억과 시선을 이용하여 신화적이고 화해롭고 풍요로운 시원의 공동체 세계로 북방 마을을 재구해낸 것이다."[20] 백석의 시에서 특징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현재의 정황을 포착하지 않고,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 자체를 그려내"[21]려는 시도는 그 기저에 복원적 노스탤지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절날나는 엄매아배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있는 큰집으로가면//얼굴에별자국이솜솜난 말수와같이눈도껌벅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짠다는 벌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많은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 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 입술과 젓꼭지는더깜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무의딸承女 아를承동이/六十里라고해서 파랗게뵈이는山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빩안 언제나힌옷이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짤때가많은 큰곬고무 고무의딸洪女 아들洪동이작은洪동이/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젓닮으려가기를좋아하는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이그득히들 할머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몽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내음새가나고/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 볶운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쥐잡이를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하고 이렇개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논다/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

19) 이효석, 「영서의 느낌」, 『조광』, 1936.11.
20) 곽효환,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2008, 152-153면.
21) 나명순, 「백석 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43면.

들은 아이들끼리 웃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몇번이나독구고 홍게닭이몇번이나울어서 조름이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그림자가치는아츰 시누이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여우난곬族」 전문(『사슴』, 1936)

「여우난곬族」에는 친족들이 명절날 큰집에 모여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모습이 정감 있게 그려져 있다. '여우난곬'은 여우가 많이 출몰하는 산골짜기를 뜻하는 이름으로 '여우난곬族'은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일가친척들을 일컫는 말이다. "명절날"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에 가기 위해 "엄매아배"를 따라가는 '나'와, 그런 '나'를 뒤따라오는 "우리집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1연은 앞으로 큰집에 가서 펼쳐질 이야기의 흥미진진한 도입부 역할을 한다. 2연은 큰집에 모인 일가친척들을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 "土山고무 고무의딸承女 아를承동이", 큰곬고무 고무의딸洪女 아들洪동이작은洪동이",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과 같이 그들 소가족이 속한 구성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열거한다. 명절날 본격적인 흥겨운 어울림에 앞서 마치 '큰집'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듯하다. 각각의 인물이 가진 신체적/성격적 특징과 사연을 담은 수식어구가 경쾌한 리듬과 함께 반복적으로 부연되고 있다. 「여우난곬族」은 "길게 꺾어 넘어가지 않고, 말을 한꺼번에 몰아붙이어 엮어 나가는 가락, 즉 음악적인 리듬이 촘촘한" 창법을 통해 "다양한 사실이나 정황 등을 엮어 나가는 언어 표현형태"로 사설시조나 민요에서 볼 수 있는 '엮음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22] 또한 이 시에 나타난 "부연적 반복과 병렬적 반복의 형태", "독특한 뛰어쓰기 방법은 구술적인 특성인 말하기의 호흡을 시각화된 현대시에 들여오려는 시도"로 보인다.[23]

---

22) 고형진, 「백석 시와 '엮음'의 미학」, 박노준・이창민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214-215면.

23) 이경수, 『한국 현대시와 반복의 미학』, 월인, 2005, 73-76면.

2연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떤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얼굴에별자국이 솜솜난”,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비의 후처가된”, “해변에서 과부가된”,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그들의 인간적 결함조차 이곳에서는 가족끼리의 정겨운 친화력으로 작용한다”[24]. 3연의 “안간”(안방)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친족들이 한데 “이그득히들”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들 또한 놓여있다. 4연의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녁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기 위해 친족들이 모두 모인 것이다. 이때 음식물(“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 볶운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은 2연에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4연에서 아이들은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배나무동산”에서 “쥐잡이”, “숨굴막질”, “꼬리잡이” 등등을 하며 “북적하니논다”. 깊은 밤 집안에서는 “엄매는어매들끼리”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 “무이징게국”의 맛있는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잠이 든다. 백석은 「여우난골族」에서 유년의 시선과 평북 방언으로 명절날 친족들이 한데 모여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는 북방의 토속마을을 사실적으로 복원해 내고 있다. 소외되는 사람이나 사물도 없이 모두 같이 어우러지는 명절날의 풍경은 공동체적 충일감으로 가득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은 지금의 친족들을 번성케 한 핏줄의 근원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 명절날 “큰집”에 모인 ‘여우난골族’처럼 백석의 다른 시 「모닥불」에서는 갖가지 사물들과 사람들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든다.

>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닢도 머리카락도 헌겁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짗도 개털억도 타는 모닥불//재당도 초시도 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아이도 새사위도 갖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쪼인다//모닥불은 어려서우리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없는 서러운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된 슳븐력사가있다
>
> -「모닥불」 전문(『사슴』, 1936)

24)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52면.

이 시의 중심에는 '모닥불'이 있다. '모닥불'은 땔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1연의 "새끼오리"부터 "개털억"까지의 사물이 '모닥불'에 던져져야지만 '모닥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채 유지될 수 있다. '모닥불'에 던져지는 "새끼오리"와 "헌신짝"을 통해 '모닥불'은 타오르고 그 '모닥불'은 2연의 "재당"(향촌의 최고 어른을 이르는 존칭)부터 "강아지"까지 모두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싸게 만든다. '모닥불'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과 사람들의 나열은 「여우난곬族」에서 음식물과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여우난곬族」에서 명절날 '큰집'에 가는 '나'를 따라가는 "우리집개" 또한 '여우난곬族'이라는 공동체에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듯이 「모닥불」에서는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큰개도 강아지도" 빠지지 않고 같이 어울려 '모닥불'을 쬔다. 이러한 '모닥불'에는 환영처럼 "어려서우리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없는 서러운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된 슳븐력사"가 일렁인다. 시적 주체는 '모닥불'에서 어릴 적 "어미아비"를 상실한 "우리할아버지"의 슬픈 내력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는 「여우난곬族」의 2연에서 소개된 친족들이 가진 어떤 결함과 슬픈 사연을 연상시킨다.

백석의 시세계에서 북방의 토속 마을은 근원적인 고향의 원형으로 나타난다. '여우난곬族'의 '큰집'이 고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갖가지 음식물과 친족들이 한데 모여 명절날의 흥겨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닥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은 그 '모닥불'을 지필 수 있는 땔감과 함께, 그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과 동물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여우난곬族」과 「모닥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표들의 나열에 의한 언어적 표현과 그에 따른 구조적 유사성은 백석이 상실된 고향과 관계 맺는 심리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모닥불'은 스스로 자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기표들의 연쇄에 의해 현존한다.[25] '모닥불'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25) 신용목은 라캉의 은유와 환유 이론을 적용하여 「모닥불」을 분석하고 있다. '타다'와 '쬐다'는, 기표들을 '모닥불'이라는 대상에 연쇄적으로 결합시키는 고정점으로써 환유 자체로 기능한다. '타는 것들'과 '쬐는 것들'이라는 각각의 기표들이 은유로 나타났다가 다음에 오는 은유와 결합하여 환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기적이고 점층적인 구조를 가진다. '모닥불'은 끝없이 '타는 것들'과 '쬐는 것들'의 연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은유에 의해 드러나는 주체와 환유에 의해 드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불꽃의 일렁임으로 존재하며 불꽃의 열기는 그것을 제대로 감각하려는 자의 접근을 막는다. '모닥불'에 가닿는다면 존재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불태우는 '모닥불'의 실재와 마주치지 않고, 그것을 적당히 따듯한 열기와 환한 불빛으로 감각하려면 일정한 거리가 요구된다. '모닥불'을 둘러싼 기표들의 연쇄가 '모닥불'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모닥불'은 슬픔의 정서와 연결된다. 표면적으로는 생생하게 불타오르는 '모닥불'의 현존을 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닥불'에 던져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의 소멸을 지켜보는 것이다. '모닥불'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떤 상실(로 오인되는 결여)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백석의 시에서 '고향'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로 위치해야지만 그 상실의 거리 속에서 고향에 대한 자신의 정념을 유지시킬 수 있다. '고향'과 '나'와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방황하고 세상에서 고립되어가는 주체의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적 이상향의 세계인 상실된 고향은 현실에서 결코 재현될 수 없는 '실재'이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고향이라는 '실재'에 대한 욕망이다. '고향'은 실체가 없는 가상적 지점으로 공백에 다름 아니다. '고향'의 현존은 그 '고향'이라는 공백을 둘러싼 무수한 기표들의 나열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놀이에 가까운 기표들의 나열이 백석의 시를 구성한다. 실재의 불가능성, 실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체는 (실패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다.[26] 백석 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어의 나

러나는 욕망은 계속 자리를 뒤바꾼다고 보았다. 신용목, 「백석 시의 은유와 환유 구조 : 시 「모닥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3호, 한국시학회, 2012, 245-271면 참조.

26) "실재는 초월적 실정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접근할 수 없는 단단한 중핵처럼 상징계 너머 어딘가에 존속하고 있는 일종의 칸트적 '물 자체'이다.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중심적 불가능성을 각인하는 상징적 구조 내의 구멍, 곧 공백이다. 주체를 '실재의 응답'으로 정의하는 라캉의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빈 자리를 그의 상징화의 실패를 통해 쓸 수 있는데 이는 주체란 단지 그의 상징적 표상 과정이 실패하는 지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Slavoj Žižek,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74면. 라캉은 『세미나 11권』에서 '투케'는 '실재(와)의 만남'이라고 말하며 '오토마톤'은 기호들의 회귀, 재귀, 되풀이가 우리 자신이 쾌락원칙의 명령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면, 실재는 바로 그런 것들 너머에 위치한다고 언급한다. 실재는 항상 오토마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Jacques Lacan, 맹정현・이수련 옮김,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열과 반복의 구조는 주체 스스로 상실된 고향에 대한 접근을 막는 무의식적인 방어 전략이다. 고향을 상실했다는 자신의 결여를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기표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슴』 시집은 상실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하는 복원적 노스탤지어, 곧 귀환 불가능한 '고향'에 대한 욕망이 낳은 언어적 구축물이다. 단순히 상실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상실된 고향을 현실에 복원하고 되살리려는 것은 실재에의 열정, 즉 복원적 노스탤지어에 기인한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어원상 귀환('nostos')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상실된 집을 다시 건설하고 복구하려는 욕망에 기인한 감정이다. 과거를 하나의 총체적인 완성체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성스러운 기원의 회복에 대한 꿈은 기원적 과거를 노스탤지어의 감정 속에서 신화적 구성체로 등장시키는 것이다.[27] 백석은 자신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한 북방의 토속 마을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근대의 문물과 식민지 현실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은 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기원인 북방의 토속마을을 복원적 노스탤지어라는 감정 속에서 신화적 완성체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북방의 토속마을은 단순히 개인의 고향, 기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되며 보편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28] 백석은 자신의 생물학적 고향을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정념 속에서 도달 불가능한 초월적인 이상향의 세계에 위치시킨다. 백석 시의 시적 주체는 복원적 노스탤지어에 의해 상실된 고향을 그대로 복원하고 충일감을 느낀다.

한편, 백석 시에서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고향에 대한 충실한 재현으로만

개념』, 새물결, 2008, 88면. 백석 시에서 '오토마톤' 즉 반복강박은 상실된 고향에서 경험한 공동체적 삶의 충일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을 계속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표들의 환유적 나열은 고향이라는 '실재'에 대한 응답이자 실패로서 드러난다. 「北方에서」를 보면 '나'가 근원적/원초적 시공간인 북방으로 귀환했을 때 그곳이 황폐하고 텅 빈 장소임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주체가 공백으로서의 '실재'인 고향과 대면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27) Svetlana Boym, Op. cit, pp.41-48 참조.

28) 「北方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가 떠나기 전의 '북방'은 『사슴』에서 인간이 온갖 동식물과 함께 어울리는 토속적 고향의 친밀한 공동체와 유사하다. '북방'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의 기원으로 확장된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시적 주체(성인 화자)가 '진정한 고향적인 것'과의 접촉을 통해 공동체적 충일감을 현실에 불러들일 때에도 작동한다. 『사슴』 시집 이후의 유랑 시편에는 부정한 현실 속에서 고향이라는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 나는 北關에 혼자 앓어누어서/어늬아츰 醫員을 뵈이었다/醫員은 如來같은 상을 하고 關公의수염을 들이워서/먼녯적 어늬나라 신선같은데/새끼손톱 길게도은 손을내어/묵묵하니 한참 맥을집드니/문득물어 故鄕이 어데냐한다/平安道 定州라는 곧이라한즉/그렇면 아무개氏 故鄕이란다/그렇면 아무개氏ㅅ르 아느냐한즉/醫員은 빙긋이 우슴을 띄고/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쓷다/나는 아버지로 섬기는이라한즉/醫員은 또다시 넌즛이 웃고/말없이 팔을잡어 맥을보는데/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故鄕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 -「故鄕」 전문(『三千里文學』 제2집, 1938.4)

「故鄕」의 '나'는 고향을 떠나 객지인 "北關"(함경도)에서 혼자 앓다가 "먼녯적 어늬나라 신선같은" "醫員"에게 진맥을 받게 된다. 의원은 바로 병을 파악하지 않고 "묵묵하니 한참" 동안 맥을 짚는다. 그러다 어디가 아프냐고 묻듯이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 신선과 같이 영묘한 의원의 질문은 '나'의 앓아누움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곧 말 그대로 고향이 그리워서 생기는 마음의 병인 노스탤지어인 것이다. '나'가 "平安道 定州"가 고향이라고 하니 의원은 "아무개氏 故鄕"이라고 말하는 와중에 '나'와 '의원'은 서로 "아무개氏"와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무개氏"가 의원에게 허물없이 아주 친한 사이인 "莫逆之間"이라면, '나'에게는 "아버지로 섬기는이"로 서로에게 각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나'와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서로에게 친밀함을 표시한다. 의원은 넌지시 웃으며 말없이 '나'의 팔을 잡아 맥을 본다. '나'는 그런 의원의 "손길"에서 따스하고 부드러움을 느낀다. '나'에게 첫 번째 "맥"(6행)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지만 두 번째 "맥"(마지막 행)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한다. 바로 "맥"을 보는 의원의 "손길"을 통해 "故鄕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만나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마치 "故鄕"에 간 것처럼 안

온한 충족감 속에서 치유를 경험한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 혼자 남겨진 '나'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실된 고향 혹은 고향이 주는 공동체적 충일감을 상상적으로 복원하는 길뿐이다. 백석 시의 시적 주체는 고향에서 떠나온 지금의 현실인 '세상'을 부정한 상태로 인식하고 상실된 고향의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되찾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시적 주체로 하여금 상실된 고향의 순간적인 현현을 기도企圖하게 만든다.

> 낡은 나조반에 힌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앉어서/쓸쓸한 저녁을 맞는다//힌밥과 가재미와 나는/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도 다할것같다/우리들은 서로 믿없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우리들은 맑은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긴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탓이다/바람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소리를 들으며 단이슬먹고 나이들은탓이다/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배우며 다람쥐동무하고 자라난탓이다//우리들은 모두 욕심이없어 히여졌다/착하디 착해서 세괏은 가시하나 손아귀하나 없다/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없다/그리고 누구하나 부럽지도않다//힌밥과 가재미와 나는/우리들이 같이 있으면/세상같은건 밖에나도 좋을것같다
>
> -「咸州詩抄-膳友辭」 전문(『朝光』3권 10호, 1937.10)

「膳友辭」에는 혼자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힌밥'과 '가재미'가 나온다. '나'는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고향)이 '나'와 같고 "우리들" 모두 욕심이 없고 정갈해서 파리하다면서 강한 동질감을 피력한다. 고향을 떠난 현실의 '나'는 "낡은 나조반"을 둘러싼 "힌밥과 가재미와 나"를 통해 「여우난골族」에서 명절날 흥겨운 '큰집'에서의 경험과 같은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쓸쓸한 저녁"은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지만 "우리들"은 '고향'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 충족한 상태에 이른다. 부정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멀리 떠나온 잃어버린 고향의 풍경과 내력을 떠올리고 그 속에서 공동체적 충일감을 유지하는 것이다.[29]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

29) 백석은 「국수」, 「北關」, 「湯藥」, 「月林장」, 「北新」에서와 같이, 고향과 연관된 속성을 가진 북방의 장소/대상을 시적 소재로 삼아 근원적 고향을 환기시키면서 상실된 고향에 대한 자신의 환상을

‘고향’을 보존하는 길은 그 둘 사이를 서로 합치할 수 없도록 멀리 떼어놓는 길이다.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짓걸하는 거리”(「許俊」)인 이 ‘세상’이 속물적이고 더러운 곳일수록 유년의 ‘고향’은 더 성스럽고 고귀한 시공간에 위치하게 된다. 온갖 동식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던 유년의 고향[30]에 뿌리를 둔 ‘우리’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대척점을 형성한다. 고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우리들”이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 고향이 주는 공동체적 충일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제거되고 배제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타락한 ‘세상’을 “우리들”의 저 바깥에 두어야만(“세상같은건 밖에나도 좋을것같다”) 과거 유년시절, 북방의 토속 마을이 주던 공동체적 충일감을 지금 이곳에서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다.[31] 비본질적이고 타락한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고향’의 공동체적 충일감을 되살릴 수 있다. 백석에게 유토피아적 시공간은 현실에서 찾아 헤매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유년 시절에 경험한 북방의 토속 마을로 상정되어 있다.

상연한다.

30) 『사슴』 시집의 첫 장에 있는 작품인 「가즈랑집」은 「여우난곬族」과 마찬가지로 멧돼지, 승냥이, 토끼 등의 짐승들과 온갖 산나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토속적인 고향을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膳友辭」의 ‘나’와 ‘힌밥’과 ‘가재미’가 자란 “외따란 산골”은 이러한 토속적인 유년의 고향을 상기시킨다.

31) 시적 주체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고향의 공동체적 충일감을 보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 「가무래기의 樂」에서는 “맑고 가난한 친구”로서 “가무래기”와 ‘나’의 동질감을 강조하면서 “이못된놈의 세상을 크게 크게 욕할 것이다”라며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에서 ‘나’는 눈 내리는 겨울밤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의 상상적인 합일을 꿈꾼다. ‘나’는 ‘나타샤’와 함께 ‘힌당나귀’를 타고 “깊은산골” “마가리”(오두막)에 가서 살자고 하는데, 환청으로 짐작되는 ‘나타샤’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산골로 가는것은 세상한데 지는것이아니다/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것이다”라고 말한다. 백석은 “기려행과 흰눈의 은둔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에 기대어 더러운 현실로부터 시의 화자를 격리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경수, 「백석 시의 낭만성과 동양적 상상력」, 『한국학 연구』 제21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59면. 「『호박꽃초롱』序詩」를 보면, 하늘은 버드나무 밑 당나귀 소리를 흉내 내는 시인, 두툼한 초가지붕 밑에 호박꽃 초롱 켜고 사는 시인, 아늑하고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볕만 바라는 시인을 사랑하지만 “이러한 詩人이 누구인것을 세상은 몰라도 좋으나” “그이름이 姜小泉인것을 송아지와 꿀벌은 알을것이다”라면서 ‘세상’에 대한 의식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시인’(姜小泉)과 ‘송아지’와 ‘꿀벌’과의 공동체적 연대를 드러낸다. 이처럼 백석의 시에는 타락한 ‘세상’과 ‘진정한 고향’에서 온 ‘우리’라는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타락한 ‘세상’에서 상실된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를 추출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백석에게 고정불변하고 접근 불가능한 근원적 '고향'(실재)은 '세상'이라는 대립적 구성물을 통해 위치 지어진다. '세상'은 '밖에' 두는 방식으로 제거되어야만 '고향'의 공동체적 충일감은 상상적으로나마 일시적인 실현이 가능해진다.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식민지 시인이 고향이라는 실재를 추출하기 위해 타락한 '세상'을 제거하고 파괴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다만 소극적인 형태로 '세상'에 대한 거부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통해서 '고향'을 지키는 방식을 취한다. 동시에 '나'는 "이못된놈의 세상"(「가무래기의 樂」)을 피해 "산골"과 "곬안"("나는 작고 곬안으로 깊이 들어갔다"-「咸州詩抄-山谷」), '방'(「힌 바람벽이 있어」,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으로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만주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상실된 고향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세상과의 격리를 통해 '고향'의 기억과 '고향'이 주는 공동체적 충일감을 간직하고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를 고립시킴으로써 '나' 안에 있는 '진정한 고향적인 것'을 타락시키지 않고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로 드러난다. 상실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를 통해서 고향(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방'에서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쌔김질"(「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타락한 '세상'과 상실된 '고향'의 간극에 주체의 위치를 특징짓게 한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고향'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식이 된다.

백석의 시세계에서 '나'와 고향과의 거리가 '나'의 노스탤지어를 낳고 그 거리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나'의 좌표가 부여되는 것이다. 복원적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을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 기원으로 상정하면서 그 도달불가능성에서 오는 슬픔의 향유를 통해 상실된 고향과 '나'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또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자기 존재의 근원인 초월적인 고향(실재)의 위상을 보존하려는 심리적 구조를 포함한다.

3. 성찰적 노스탤지어와 '고향'에서 '빛나는 영토'로 나아가기 : 이용악

이용악의 시에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현실 속에서의 궁핍한 삶을 잠시 잊게 하는 일시적인 위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가 떠나온 고향은 척박한 기근에 시달리던 곳으로 고향 상실은 주체의 의지적인 행위에서 비롯된다. 시 텍스트에서의 현실은 고향과 마찬가지로 가난에 시름하는 비참한 삶이 이어지는 곳이다. 시적 주체를 포함해 고통 받는 민중(유이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지만 "성가스런 鄕愁를 버리자"(「제비갓흔少女야-강건너酒幕에서」)라는 말처럼 고향은 순간적인 환영으로 나타날 뿐 냉엄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한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는 끊임없이 탈향과 귀향을 반복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지만 고향의 척박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탈향을 결행하는 심리적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32] 시적 주체는 노스탤지어가 불러일으킨 환상에 의해 고향으로 되돌아오지만 황폐한 고향의 현실만 확인한 채 다시 고향을 떠나게 된다. 탈향과 귀향의 반복은 어디에서도 정주할 수 없는 식민지 현실의 비극성을 부각시킨다. 그와 동시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유랑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은 텍스트 배면에 유토피아 충동이 내재해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시적 주체가 감행하는 탈향과 귀향의 반복은 상실된 과거의 고향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안온하고 충족한 새로운 고향을 찾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고립된 채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탈향과 귀향이라는 계속적인 찾아다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고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는 행위이다. 곧 상실된 고향에 대한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과거의 기억과 환상 속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라진 고향의 가능성을 다시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32) 감태준은 그러한 심리구조를 "'막막한 고향→떠남→막막한 타향→고향으로 귀환→막막한 고향→떠남'의 악순환의 구조"로 보고 있다. 감태준, 『이용악 시연구』, 문학세계사, 1991, 156면.

운동성을 가진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는 자신의 시선을 과거의 고향 혹은 현실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과거의 고향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그 둘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인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 고향은 유토피아적 시공간으로서 주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 바닷바람이 묘지를 지나/문허지다 남은 城구비를 도라 마을을 지나/바닷바람이 어둠을 헤치고 달린다/밤/등잔불들은 조름 조름 눈을 감엇다//동무야/무엇을 뒤도라 보는가/너의 터전에 쎄둘기의 團欒이 질식한지 오래다/가슴을 치면서 부르지저 보라/너의 고함은 기우러진 울타리를 멀리 돌아/다시 너의 귀ㅅ속에서 신음할ᄲᅮᆫ/그다음/너는 食慾의 抗議에 썩구러지고야 만다//기름ᄭᅵ 업는 살림을 보지만 말어도/토실 토실 살이 찔것갓다/쌕다구만 남은 마을……/여기서 생활은 가장 平凡한 因襲이엇다//가자/씨원이 써나 가자/흘러가는 젊음을 ᄯᅡ라/바람처럼 써나자//쑥장군의 전설을 가진 조고마한 늡/늡흘 직혀 숨줄이 말는 썩달나무에서/이제/늙은 올배미 凶夢스런 울음을 죄이려니/말을[33]이 ᄶᅥᆯ다/이밤이 ᄶᅥᆯ다/어서 집팽이를 옴겨노아라
>
> -「도망하는밤」(『分水嶺』, 1937)

「도망하는밤」에서 '너'는 고향을 뒤로하고 야반도주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바닷바람이 어둠을 헤치고 달린다"와 같은 표현은 '너'가 밤에 어둠 속을 뚫고 도망가는 모습을 암시해준다. 시적 주체는 "동무"에게 어서 '고향'을 떠나라고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 '너'가 '고향'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자, '너'가 바라는 "쎄둘기의 團欒", 즉 가정의 즐겁고 화목한 삶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한다. 고향은 '너'를 따듯하게 보듬어 안는 안식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황폐화된 채로 "신음할ᄲᅮᆫ"이다. 이 시에서 고향은 "묘지", "문허지다 남은 城구비", "기우러진 울타리", "기름ᄭᅵ 업는 살림", "쌕다구만 남은 마을"이라는 묘사와 같이 기근과 가난에 의해 몰락해가고 있다. 그곳에서 '너'는 "食慾의 抗議"에 꺼꾸러질 정도로 배고픔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고향 마을은 늪을 지키다가 "숨줄이 말는 썩달나무"

33) '마을'의 오식.

처럼 죽어가는 중이다. 이제 곧 늙은 올빼미의 "凶夢스런 울음"이 꾀일 것이라는 말은 더는 회생 불가능한 암울한 고향의 운명을 예시(豫示)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고향을 버리고 어서 빨리 지팡이를 옮겨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아늑한 생활의 터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버리고 떠나야 할 공간으로 드러난다.

> 하얀 박꽃이 오들막을 덮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 올라도/ 고향아/ 여름이 안타깝다 묻어진 돌담//돌우에 앉았다 섰다/성가스런 하로해가 먼 영에 숨고/소리없이 생각을 드디는 어둠의 발자취/나는 은혜롭지못한 밤을 또 불은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윗길래/ 고향아/ 되지굴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싶지 않었지// 드듸어 나는 떠나고야말았다/ 곧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그러나 너는 보드러운 손을/가슴에 얹은대로 떼지않었다/내 곳곳을 헤매여 살길 어드울때/빗돌처럼 우득헌이 거리에 섰을때/고향아/너의 불음이 귀에 담기어짐을/막을 길이 없었다// 『돌아오라 나의 아들아/ 까치둥주리 있는/ 아까시야가 그립지 않느냐/ 배암장어 구어 먹던 물방앗간이/ 새잡이하던 버들방천이/ 너는 그립지 않나/ 아롱진 꽃 그늘로/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먼길을 돌아왔다 만/버들방천에도 가고싶지 않고/물방앗간도 보고싶지 않고/고향아/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이 몇을을 미칠듯이 살아온 내게/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귀에/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사기지 말어다오/내겐 한거름 앞이 보이지않는/슬픔이 물결친다//하얀것도 붉은것도/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못했다/고향아/꽃은 피지못했다
>
> -「고향아 꽃은 피지못했다」 전문(『낡은집』, 1938)

「고향아 꽃은 피지못했다」에서도 황폐한 고향의 모습이 드러난다. 들여쓰기 한 1, 3, 4연이 '나'가 과거 고향을 떠나기 전의 상황을 떠올리는 장면이라면 나머지 연은 고향을 떠난 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1연에는 하얀 박꽃이 오두막을 덮고 강낭콩 줄기가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고향의 풍경이 나온다. 하지만 "묻어진 돌담"에 오두막을 관리하고 봐줄 사람이 없는 고향의 여름이 안타까울 뿐이다. 2연의 '나'는 타지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섰다"하면서 어떤 "생각"

에 빠진 채 “은혜롭지못한 밤”을 또 부른다. 그 “은혜롭지못한 밤”은 3, 4연에서 ‘나’가 과거에 “되지굴같은 등잔불”이 켜진 고향을 버리고 떠난 밤이다. ‘나’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 대한 희망인 “마음의 불꽃”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그날 밤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연에는 ‘나’가 “낯선 곳”을 헤매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향은 부드러운 손을 자신의 가슴에서 떼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왔지만 타지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기에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돌아오라는 고향의 부름은 환청처럼 들려온다. 6연은 의인화된 고향이 ‘나’에게 건네는 말로 고향이 몰락하기 전, 유년의 즐거웠던 추억을 상기시킨다. 고향이 황폐화되기 전에는 “아까시야” 나무에 “까치둥주리”가 있고 “배암장어 구어 먹던 물방앗간”과 “새잡이하던 버들방천”이 있는, 살기 좋은 공간이었음이 드러난다. 7연의 ‘나’는 고향이 그리워서 “먼길을 돌아왔”지만 현실의 고향은 여전히 황폐한 모습으로 놓여 있기에 가슴이 “가시덤불”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나’는 고향의 속삭임이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고향의 품을 떠나려고 마음먹는다. 8, 9연에서 ‘나’는 “슬픔” 속에서 고향이 ‘나’의 가슴 속에 아무런 “꽃”(희망)도 피우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슬픔’은 상실된 고향에 대한 괴로움으로, 곧 이용악 시의 노스탤지어이다. ‘나’는 “너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고향이 자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임을 인정하지만 삶의 안식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괴로워한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는 현실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실제 고향은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다. 고향은 아늑한 삶의 터전이었던 적이 있지만 그 순간은 되돌아갈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이다.[34] 상실된 고향은 유토피아적 시공간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불모지로서 황폐한

34)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주로 기근에 시달리는 황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몇몇 시편에서는 안온하고 충족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시로 「버드나무」(“사시사철 하아얗게 바라뵈는/머언 봉우리 구름을 부르고/마을에선 평화로운듯/밤마다 등불을 밝혔다”), 「두메산곬 (1)」(“들창을 열면 물구지떡 내음새 내달았다/쌍바라지 열어 제치면/썩달나무 썩는 냄새 유달리 향그러웠다”), 「아이야 돌다리위로 가자」(“봉사꽃 유달리 고운 북쪽나라/우리는 어릴ㅅ적/해마다 잊지않고 우물ㅅ가에 피웠다”) 등이 있다.

상태로 남겨져 있다. 시적 주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불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용악에 있어 고향은 그로 하여금 항상 정신의 각성에 머물게 하는 시적 매개물의 의미를 지닌다."[35] '나'는 고향의 과거, 현재를 반추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고향을 재확인하고 다시 떠나려 하는 것이다.

삽살개 짖는 소리/눈포래에 얼어붙는 섯달 그믐/밤이/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걸어온 길까에 찔레 한송이 없었대도/나의 아롱범은/자옥자옥을 뉘우칠줄 몰은다/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맏이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싶던 밤이면/ 울어머닌/ 서투른 마우재말도 들려주섰지/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다시 내게로 헤여드는/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나는 그모도를 살틀히 담았으니/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거사리지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날고싶어 날고싶어/머리에 수슴푸레 그리어진 그곳/우라지오의 바다는 어름이 두텁다//등대와 나와/서로 속사길수없는 생각에 잠기고/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전문(『낡은집』)

양털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게 마즈막 길/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었다/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게신 아라사를 뭇잊어/술을 기우리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영영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룸이/가슴에 옴추리고 떠나지 않는것은 나의 슲음/몰풀 새이새일 헤여가는 휘황한 꿈에도/나는 두려운 아이 몸소 귀뿌리를 돌린다//잠시 담배연길 잊어바린/푸른 한나절//거세인 파도 물머리마다 물머리 뒤에/아라사도 아버지도 보일듯이 숨어 나를 불은다/울굺어도 우지못한 여러해를 갈매기야/이 바다에 자유롭자

-「푸른한나절」 전문(『女性』,1940.8.)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는 특이하게도 고향이 아닌, 이국땅의 '우라지오'

35)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이용악론」, 윤영천 편, 『이용악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18, 493면.

(소련 극동 방면의 연해주 남부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36]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성인의 '나'가 부두에 와서 유년 시절에 어머니, 누이와 함께 보냈던 밤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내비치기는 하지만 그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된 주된 정념은 '우라지오'에 대한 그리움이다.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인 섣달 그믐날 밤, 술을 마신 '나'는 자기 안의 "불타는 소원"에 이끌려 "우라지오와 가까운 항구"인 "이 부두"에 왔다고 말한다. 여기서 "부두"는 이용악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 인근에 위치한 '청진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거리이면서 당시 '청진항'은 발달된 항구도시로 '우라지오'(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선박 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37] "나의 아롱범"(표범)이 걸어오면서 길에 남긴 "자옥자옥"('자국자국'의 북한말)을 뉘우칠 줄 모른다는 말은 '나'가 이곳에 오기까지 "찔레 한송이" 없는 힘든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나의 아롱범"은 "마음의 불꽃"(「고향아 꽃은 피지못했다」)과 같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은유이다. 들여쓰기 한 3연에는 '우라지오'에서 늦은 밤 가족과 함께 보낸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담겨있다. '나'는 어린 시절 "철없는 누이"의 곱슬머리를("고수머릴") 어루만지면서 "어머니"의 서투른 러시아어("마우재말")를 듣다가 잠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그 오래된 기억은 성인이 된 지금의

36) 이용악 시의 시어 풀이는 윤영천 편, 앞의 책의 〈낱말 풀이〉를 참조하였다.

37)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를 '청진항'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용악이 북에서 쓴 시 「봄의 속삭임」, 『조선문학』, 1960.4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와 유사하게, "청진 부두"에 있는 '나'가 누이와의 "애틋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어둡던 나날을 영영 하직한/여기는 청진 부두/아직은 겨울이건만 가슴 속 움트는/봄의 속삭임 조잘조잘 내닫는 개울물 소리//누이야 의젓한 너의 어깨에/너의 어깨에 입맞춘 그 시각부터/해토하는 흙냄새 흠씬 맡으며/나는 고향´ 벌에 벌써 가 있다.//얼마를 절하면 끝이 있을가/너와 나의 애틋한 어린 시절이")이 나온다. 또한 「關北, 滿洲出身作家의 '鄕土文化'를말하는座談會」, 『三千里』, 1940.9에서 이용악은 자신의 유년기에 밀무역 행상을 했던 어머니가 연해주에서 돌아오는 날, 누나와 함께 '청진'으로 마중 가던 일을 언급하고 있다("저는 어릴때 어머니에게 업혀서 우라지오 나 허바리깨 같은델 단닌일이 있는데 밑엣 동생이 생긴뒤로는 어머니를 동생에게 빼앗기고 어머니가 아라사에서 돌아오시는 날을 기대리던 일이라던지.//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날엔 새벽부터 누나랑 소술기를 타고 배닫는 淸津으로 가던일이라던지.//오실때마다 으레히 갖다주시던 흘레발(로시아빵)을 그때 아래웃집에 살든 申東哲(詩쓰는)君과 나눠먹으면서 좋다고 뛰어단이던 일이라던지 모두 그리웁습니다.").

‘나’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나’는 그 기억 모두를 살뜰히(“살틀히”) 담아 소중하게 간직한다. ‘우라지오’는 ‘나’가 실제 경험한 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들은,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곳이다. “얄팍한 꿈”인 것을 알지만 ‘나’에게는 그 갈 수 없는 ‘우라지오’에 날아서 가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있다. 어린 시절에 “누이”, “어머니”와 함께 밤새 ‘우라지오’로 이야기꽃을 피웠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우라지오’는 자연스럽게 따듯한 가족을 연상시키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노스탤지어는 실제 고향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우라지오’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에서 촉발되는 정념이다. ‘나’는 어머니의 ‘우라지오’ 이야기를 누이와 함께 들었던 유년의 한 시절을 그리워한다.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이지만 남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라지오’에서의 행복했던, 또는 행복할 수도 있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우라지오’는 생물학적인 고향은 아니지만 되돌아가고자 하는 심리적인 고향이자 가족 공동체가 최소한의 안온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용악에게 아라사와 우라지오는 ‘조선의 지금, 이곳’으로부터 탈출과 해방을 생성하는 장소”[38]인 것이다.

「푸른한나절」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와 유사한 모티브로 쓰인 작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연해주 지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검은 기선”이 나오고 “파도” 너머로 보일 듯한 러시아(“아라사”) 땅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시의 장소도 ‘청진항’일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가 “양털모자 눌러쓰고 돌아”온 것이 마지막 길이며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었다”라는 이야기는, ‘러시아의 레닌 혁명 이후 1922년 조선인의 소비에트화를 경계한 일

38) 정우택, 「이용악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국경의 감각」, 『대동문화연구』 제104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403면. 정우택은 러시아 연해주를 이용악의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사연과 기억이 쌓인 장소이자 그리운 곳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상지리를 살펴봄으로써 이용악의 시에서 ‘국경의 감각’이 식민지 조선의 바깥을 상상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제가 국경을 봉쇄하고 이주를 금지했던 당시 급변하던 정세'[39]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는 뱃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던,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게신 아라사"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술을 기울이면서 외로움에 시달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그 '아버지'의 외로움을 대물림 받게 된다. 아라사에 두고 온 가족("외할머니 큰아버지")을 잊지 못했던 '아버지'의 외로움이 '나'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슬픔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 현실 또한 그대로 남겨져 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했던 '아라사'를 향해 물풀("몰풀") 사이로 헤엄쳐 가는 "휘황한 꿈"[40]도 이제는 '나'에게 두려운 일이 된다. "거세인 파도" "물머리 뒤에/아라사도 아버지도 보일듯이 숨어 나를 불은다"라는 표현을 볼 때, '나'는 항구에 서서 "아라사"가 있는 바다 쪽을 망연히 보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푸른한나절」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에 나타난 배경과 심리적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때, 이 시의 '아라사'는 '우라지오'로 특정될 수 있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게신 아라사"와 "아버지도

39) 윤영천은 이를 근거로 들면서 이용악의 "부망父亡 시기는 아무리 늦더라도 1922년 이후로 내려잡기는 곤란하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윤영천, 앞의 책, 452면 참조. 이용악의 아버지는 밀무역을 하다가 낯선 타향에서 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풀버렛소리 가득차잇섯다」, 「우리의 거리」-"타향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지만 「푸른한나절」에는 '아버지'가 아라사로 가는 뱃길이 끊기고 나서 술을 기울이며 외로워했으며 그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정황이 나온다. 개인적 일화를 시 작품에 그대로 담는 시인의 습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의 내용을 비추어본다면, 아마도 국경봉쇄 이후 '아버지'는 육로로 숨어서 국경을 건너다니다가 타향에서 객사했을 거라는 추측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용악의 부망(父亡) 시기는 1922년 국경봉쇄 이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정우택은 연해주에서 1929년부터 추진한 집단농장체제가 1933년 즈음 완성되면서 조선인의 연해주 러시아 왕래가 봉쇄되었으며 1937년 10월 실행된 연해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라고 마감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를 이용악이 1937년 겨울에 썼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정우택, 앞의 글, 417면 참조.

40) "휘황한 꿈"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에서 '우라지오'로 가고 싶어 하는 '나'의 "얄팍한 꿈"과 유사한 표현이다. 이 두 작품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두에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과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었다"(「푸른한나절」)는 표현은 각각의 시에서 국경 봉쇄로 뱃길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푸른한나절」에서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를 보며 '우라지오'로 날아서 가고 싶다는 '나'의 호소와, 「푸른한나절」에서 "갈매기"를 부르면서 "이 바다에 자유롭자"고 말하며 여러 해 동안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잠시나마 잊으려는 시도는 표현 면에서 서로 비슷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보인다.

어머니도/젊어서 한창땐/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우리의 거리」)이라는 시구를 보면 이용악의 친인척들이 러시아 연해주의 '우라지오' 같은 한인 이주 지역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라지오'는 대대로 밀무역에 종사했던 이용악의 선대(先代)에 가족 구성원들이 일시적인 정착을 시도한 장소 내지는, 함께 지냈던 공동체의 기억이 있는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용악의 시에서 연해주 지역은 "가족이라는 원초적 경험이 담겨있는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며 상처받은 화자들이 위로받기 위해 끊임없이 회귀하는 공간"으로 "고향을 대체하는 또 다른 고향으로 기능한다."[41]

이용악 시에 나타난 귀향과 탈향의 반복은 시적 주체가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고향'을 찾기 위한 방황이다. 이때 '진정한 고향'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시적 주체로 하여금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고향의 현실을 넘어 미래의 실현가능한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용악의 시에서 유년의 고향이 가난과 기근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곳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타향인 러시아의 '우라지오'는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특이한 지점이다. 이용악의 시와 산문에서 그가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라지오'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용악은 자신도 모르게 '우라지오'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동경을 품었을 것이다. '우라지오'는 1922년 일제에 의한 국경봉쇄로 접근이 금지되면서 더욱 강렬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소환된다. '우라지오'는 과거의 이상적인 시공간이자 또 다른 고향으로서 그것을 선취하지 못했다는 회한(悔恨)의 감정을 들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고향'의 형상을 어렴풋이 상상하게 만드는 일종의 모델로서 기능한다. 가족의 말을 통해서만 전해 들은 '우라지오'[42]는

41) 한아진은 이용악의 시에서 만주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연해주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보고, 연해주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시 4편(「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푸른한나절」, 「벨로우니카에게」, 「우리의 거리」)에는 등장인물이 대부분 가족이고 회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아진, 「이용악 시의 서사성과 장소 체험—시적 표상 공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3, 170-173면 참조.

42) 시 「우리의 거리」("아버지도 어머니도/젊어서 한창땐/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어머니의 등곬에 파묻힌 나는/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 없이/얼

마치 유토피아와 유사하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가보지 못한 좋은 곳'으로 각인된다. '우라지오'라는 대상의 존재는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가 상실된 '고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 다른 '진정한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만든다. '실재'로서의 '진정한 고향'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 과정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대상이다. '진정한 고향'은 주체가 정작 그곳에 도착한다면 유토피아적 의미에서 그 지위를 잃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 알룩조개에 입마추며 자랐나/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골/가시내야/나는 발을 얼구며/무쇠다리를 건너 온 함경도 사내//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어드운 둥불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것만 같해/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믿어운 복간도 술막//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눈포래를 뚫고 왔다/가시내야/너의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거다오//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달전이면/단풍이 물들어 철리 철리 또 철리 산마다 불탔을겐데/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불술기 구름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듯/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색이는 보조개/가시내야/울듯 울듯 울지 않는 절라도 가시내야/두어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께/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 가거라//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게다/노래도 없이 사라질게다/자욱도 없이 사라질게다
>
> -「절라도 가시내」 전문(『오랑캐꽃』, 1947)

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와 이용악의 어린 시절 동향 친구인 이수형 시인이 『이용악집』에 쓴 발문 「용악과 용악의 藝術에 對하여」("幸인지 不幸인지 젖먹이 때 우리는 放浪하는 아비 어미의 등골에서 시달리며 무서운 國境을 넘어 우라지오 바다며 아라사 벌판을 달리는 이즈보즈의 마차에 토로이카에 흔들리어서 갔던 일이며, 이윽고 모도다 홀어미의 손에서 자라울 때")를 보면, 이용악이 젖먹이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우라지오'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그가 직접 겪은 '우라지오'에 대한 체험이나 구체적인 기억은 찾아볼 수 없다. "어머니는 얼어 붙은 우라지오의 바다를/채쭉쳐 달리는 이즈보즈의 마차며 토로이카며/좋은 하늘 못보고/타향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길 하시고"(「우리의 거리」)라는 시구처럼 '우라지오'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족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절라도 가시내」는 "함경도 사내"인 '나'가 '너'(절라도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화법을 통해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 술집에 팔려온 여자의 사연을 독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너'의 고향은 전라도의 바닷가인 것으로 추측된다. 1연에서 '나'는 '너'에게 "알룩조개"에 입을 맞추면서 자랐느냐고 묻고 또 '너'의 눈이 바다처럼 푸르고 얼굴이 까무스레하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석 달 전에 두만강 건너 "북간도 술막"에 팔려와 현재 '나'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나'는 '너'가 들려주는 고향의 "가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 '너'는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이곳의 황량한 "복간도 술막"과는 다르게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과 "단풍이 물"든 "산"과 같이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을 가슴 속에 품고 있다. '너'는 그리운 고향 생각에 빠졌는지 고향 바닷가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때로 싸늘한 웃음"을 짓는다. '나'가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준다는 것은 "울듯 울듯 울지 않는 절라도 가시내"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북간도 술집에 팔려온 비참한 현실을 잠시 잊고 "너의 나라"(고향)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고향의 환상을 통해 지금의 "자욱한 시름"을 잠시 잊으라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연에서 '나'는 밤이 지나고 "얼음길"이 밝으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고향을 떠올리면서 취하는 상상적인 만족은 현실을 바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고향의 "노래"와 "자욱"을 버리고 혹독한 현실을 헤쳐 나가겠다는 '나'의 의지로 읽힌다.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어원상 고통('algia')에 기반한 것으로 과거를 재현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식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불완전한 과정에 나타나는 감정이다. 노스탤지어에 빠진 자를 괴롭게 심문하면서 지난 시절이 남긴 파편들을 비추고 과거의 실패한 꿈을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이루려는 마음이다.[43] 이때 이용악의 시에서 '과거의 실패한 꿈'이란 '우라지오'와 연관된 기억으로 가족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43) Svetlana Boym, op. cit, pp.41-51 참조.

터전일 것이다. 이용악 시에서 고향은 유토피아적 이상향의 시공간이 아니라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불모지로서 그리움보다는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시적 주체는 폐허와 같은 고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성가스런 鄕愁"를 잊고 새로운 공동체적 삶이 가능한 터전을 찾기 위해 "벌판"(「절라도 가시내」)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용악 시에서 고향에 대한 정념인 성찰적 노스탤지어는 상실된 고향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고향을 찾게 만드는 동력으로 기능한다.[44]

> 몇 천년 지난 뒤 깨어났음이뇨/나의 밑 다시 나의 밑 잠자는 혼을 밟고/새로히 어깨를 일으키는것/나요/불ㅅ길이요//쌓여 쌓여서 훈훈히 썩은 나무잎들을 헤치며/저리 환하게 열린 곳을 뜻함은/세월이 끝나던 날/오히려 높디높았을 나의하늘이 남아있기 때문에//내 거닐는 자욱마다 새로운 풀폭 하도 푸르러/뒤돌아 누구의 이롬을 부르료//이제 벌판을 가는것/바람도 비도 눈보라도 지나가버린 벌판을/이렇게 많은 단 하나에의 길을 가는것/나요/끝나지 않는 세월이요
>
> -「벌판을 가는 것」 전문(『오랑캐꽃』, 1947)

「벌판을 가는 것」에는 척박한 고향과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가려는 '나'의 의지가 엿보인다. '나'는 스스로를 몇천 년 동안 "잠자는 혼을 밟고" 새로이 어깨를 일으키는 "불ㅅ길"[45]이라고 지칭한다. "불ㅅ길"은 "썩은

---

44) 이는 애도 작업에 있어서, 상실된 대상(고향)을 기억하고 반추함으로써 그것의 상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상에 집중되었던 리비도를 철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용악의 시에서 상실된 고향을 확인하고 떠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나'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상실을 현실에 등록시키려는 애도 작업에 기인한다. "프로이트는 역설적이게도 대상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애도의 경제적 프로세스를 '애도 작업'이라고 부른다. 즉, 애도 작업이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라진 대상으로부터 리비도를 떼어 내는 정신적인 작업을 가리킨다." 맹정현, 『멜랑꼴리의 검은 마술』, 한솔수북, 2015, 56-57면. 또한 이용악 시에서 시적 주체가 황폐한 '고향'과 고통 받는 '민중'을 떠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것은 상실의 고통과 죄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반복 강박, 즉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내 보이는 주체의 성향"에 의한 것이다. Dylan Evans, 김종주 외 역,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004, 135면.

45) 윤영천은 이 시에서 고향 이미지는, 사회적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연시키는 내향적 인간을 지양하고 진정한 공동체적 삶이 실현되는 '벌판'에로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정신의 '불길'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윤영천, 앞의 책, 493면 참조. 이 시의 "불ㅅ길"은 「고향아 꽃은 피지못했다」에서

나무잎들"의 방해를 헤치고 나아가 새로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의지의 현현이다. "저리 환하게 열린 곳", 즉 "바람도 비도 눈보라도 지나가버린 벌판"에는 지금의 이 땅에는 없는 삶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벌판을 가는것"은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상명령이자 "단 하나에의 길"이다. 이 시는 자기 각성을 통해 척박한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벌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46] 이용악의 시에서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정념은 상실된 고향을 딛고 일어서 미지의 공간인 '벌판'으로 나아가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고향을 떠나야지만 새로운 고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다.

> 淺野小屋에서 얼마 않올라가 꽃밭이 있었다. 다른데서 絶對로 볼수없다는 아름다운 꽃들이 滿發해있었다./누가 이렇게 높고 추운 곳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 美로운 빛갈을 띄게 한것일까. 어디서 날러온 꽃씨들이며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싸워 이렇게 빛나는 領土를 차지한 것일까.
>
> - 산문「官帽峯登攀記」 부분(『三千里』, 1941.11)

「官帽峯登攀記」은 이용악이 함경북도 경성의 관모봉을 등반한 후 쓴 여행기이다. 그는 해발이 높고 추운 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꽃밭을 발견하고 꽃씨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싸웠을 것인가라며 감탄한다. "꽃씨들"이 고향을 떠나 유랑하면서 고통 받는 식민지 민중을 의미한다면, "빛나는 영토"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 민중들이 일궈내야 할

황폐한 고향을 뒤로하고 "멀리로 낯선 곳"을 향해 떠나가는 시적 주체의 "마음의 불꽃"과 유사한 이미지로 드러난다. "불ㅅ길"은 "마음의 불꽃"과 마찬가지로 상실된 고향을 떠나면서 그곳에 투여된 리비도를 거둬들여 새로운 대상에 전이시키는 애도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시적 이미지이자 새로운 삶의 터전(나라)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46) 이용악의 시에서 '벌판'이 암울하고 황막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것은 다음 시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차는 차대로 달리고/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건너 벌판엔/나의 젊은 넋이/무엇인가 기대리는듯 얼어붙은듯 섰으니/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뿐"(「두만강 너 우리의강아」), "마음은 피어/포기포기 어둠에 젖어//이 밤/호을로 타는 촛불을 거느리고//어느 벌판에로 가리"(「어둠에 젖어」), "다시 황막한 벌판을 안고 숨어서 쳐다보는 푸르른 하늘이며 밤마다 별 마다에 가슴 맥히어 차라리 울지도 못할 옳은 사람들 정녕 어디서 움트는 조국을 그리는 것일까"(「노한 눈들」).

새로운 삶의 터전(조국)을 상징한다.[47] 이용악의 시가 "삶의 중심적 장소로서의 고향이 그 의미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거기에 고향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터전을 새로 만드는 일에 바쳐져 왔다"[48]는 지적은 이용악 시에 나타난 성찰적 노스탤지어가 가진 미래 지향적 운동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용악의 시는 "미래의 시간에 유토피아를 상정하고 '지금 이곳'을 뛰어넘는 세계관을 투사하고 있"[49]는 것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는 떠나온 고향이거나 어떤 이상향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을 찾는 헤맴의 과정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민중들은 하나같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 유이민으로, 시적 주체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떠나온 고향의 황폐함을 확인하고 일부 고향에 대한 안온한 기억(환상)을 공유하며 향수를 달랜다. 시적 주체는 탈향과 귀향을 반복하면서 고향의 황폐함을 재확인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벌판'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드러낸다. 탈향과 귀향의 반복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조선의 현실 너머에 있는 '진정한 고향'을 꿈꿀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어렴풋이 드러나는 '진정한 고향'의 형상을 떠올리고 그것이 가능한 장소인 '빛나는 영토'를 찾아 '벌판'을 헤매는 것이다. 이용악의

47) 식민지 시기 이용악 시에 나타난 '빛나는 영토'는 해방 이후, "전진하는 새 조선의 아름다운 앞날"(「석탄」)로 연결되면서 이는 상실된 고향(민중)에 고착된 리비도가 "사회주의"(「격류하라 사회주의에로」)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는 애도의 경제학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이용악은 대동아전쟁 초기인 1942년 3-4월에 친일시로 의심되는 작품들(「길」, 「눈 나리는 거리에서」, 「죽음」, 「불」)을 발표하면서 '빛나는 영토'를 일본 제국주의 속국으로서의 조선으로 놓는 일이 발생한다. 이용악의 친일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궁핍한 생활 때문에 벌어진 일순간의 과오이며 이용악이 그해 절필하고 낙향한 것은 참회의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친일시와 관련된 내용은 한아진, 앞의 글, 193-196면; 양은창, 「이용악 시에 나타난 친일 성격」, 『어문연구』 제76집, 어문연구학회, 2013, 149-174면을 참고할 것.

48)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233면.

49) 정우택, 앞의 글, 412면. 정우택은 "밀수꾼의 자식으로 국경을 넘나들었던 이용악에게 국경은 특별한 감각이자 사상이었으며, 트라우마이기도 했다"라면서 "이러한 국경의 감각은 이용악의 시에서 국경을 돌파하고 해체하는 역동적 상상력으로 응축되었다"라고 분석한다. 이어 이용악이 "식민지 시대에 체득했던 국경의 감각과 돌파의 열망을, 해방 이후 38도선 해체의 의지로 이어갔다"라고 본다. 정우택, 같은 글, 410-416면 참조. '국경의 감각과 돌파의 열망'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이 주장하는 이용악 시에 나타난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미래 지향적 운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시에서 '진정한 고향'(실재)에의 열망은 '과거의 실패한 꿈을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이루려는 마음'인 성찰적 노스탤지어와 연결된다. '진정한 고향'은 미리 선취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장(場)에 놓여 있으며, 곧 식민지 현실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의 현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50]

4. 유토피아적 해방의 잠재성

이 글은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는 유토피아 충동에 의해 발현된, '진정한 고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실재에의 열정이 있으며 이를 백석의 시가 상실된 고향을 '진정한 고향'으로 보는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세상'으로부터 '고향'을 보존하려는 방식으로 드러낸다면, 이용악의 시에는 과거에 잃어버린 '진정한 고향'의 가능성을 미래에 투영하는 성찰적 노스탤지어와 상실된 '고향'에서 '빛나는 영토'로 나아가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가 시대를 넘어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당대 식민지 근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실된 고향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을 때이다. 1930년대 후반기는 한국 현대시에서 상실된 고향(조국)이라는, 민족주의 차원에서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 출현하게 하는 역사·배경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백석과 이용악의 시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 곧,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정념을 통해 '상실'의 자기 서사를 구축해냄으로써 식민지 현실에서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를 실현하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백석은 유토피아적 시공간으로서 북방의 토속마을을 평북 방언이라는 언어적 질감으로 구축하고 고향이 주는 충일감을 현실에 불러들이는 시도를 반

50) "라캉적 관점에서 실재는 궁극적으로 단지 어떤 한계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 뒤에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다다를 수는 없다." Slavoj Žižek, 앞의 책, 274면. 이용악의 시에서 탈향과 귀향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라캉적 의미에서 '반복강박'으로 볼 수 있다. 백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악의 시에서도 주체는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에 대한 응답이자 실패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체는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 지점(공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복한다. 상실된 고향은 복원적 노스탤지어라는 정념을 통해 초월적인 이상향의 시공간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의 유랑은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고향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신의 정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51] 상실된 고향은 초월적 이상향인 '실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적 주체는 그 공백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상실된 고향(실재)과 타락한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상실된 고향에 속한 '시인')를 분리시킴으로써 '나'가 간직한 '진정한 고향'의 실재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용악 시의 시적 주체는 새로운 고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탈향과 귀향을 반복한다. 탈향과 귀향의 반복을 통해 시적 주체는 고향이 불모지와 같이 황폐한 장소임을 확인하고 떠나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상실된 고향은 성찰적 노스탤지어의 정념 속에서 극복해야 할 장소이며 새로운 고향을 도모하기 위해 떠나야 할 과거로 확정된다. 그의 유랑은 상실된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고향(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함이다. 이용악은 생물학적인 고향 대신에 과거에 잃어버린 정신적인 고향 '우라지오'에서 진정한 고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식민지 현실에서 그것의 실현을 꿈꾼다. 시적 주체는 귀향과 탈향을 반복하면서 식민지 현실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진정한 고향'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백석의 시가 유년의 상실된 고향과 '실재'로서의 '진정한 고향'이 일치한다면, 이용악의 시는 그 둘의 불일치에 의해서 또 다른 '진정한 고향'을 상정해야 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생긴다. 유토피아 충동은 주체가 '실재'로서의 고향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그 욕망의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다. 백석 시에서 '진정한 고향'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위치해 있으므로 되돌아갈 수 없는

51) 백석의 시세계에서 현실의 고향을 방문하거나 묘사한 작품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은 이용악의 시세계가 탈향과 귀향을 반복하면서 척박한 현실의 고향을 직접 드러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진다. 백석의 시에서 고향은 상실된 채로 있어야지만 시적 주체의 정념(멜랑콜리)과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차성환, 앞의 책, 191-193면 참조.

유년의 토속적 고향이며 이용악의 경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지의 시공간에 위치한다. 이처럼 백석과 이용악에게 '진정한 고향'이란 도달불가능한 '실재'라는 사실에서는 동일하지만 백석이 '진정한 고향'('실재')의 형상을 불변하는 유년의 토속적 고향으로 못 박았다면, 이용악은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인 '우라지오'처럼 유토피아를 어떤 구체적인 실체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미지의 시공간에 열어놓는다.

유토피아 충동은 기본적으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지만 유토피아가 가진 "다른 곳에 투영하는 기능"이 노스탤지어와 연관되었을 때에 "유토피아가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서 침몰해 버릴 위험" 또한 가지게 된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가 이처럼 자폐적이고 상상적인 고향에 함몰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정한 고향'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 되는 전통들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야기의 정체성(동일성)"[52]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는 서로 다른 고향을 꿈꾸지만 분명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식민지 조선)을 향한 뜨거운 성찰과 자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는 '진정한 고향'을 찾기 위해 식민지 현실을 온몸으로 뚫고 나간 흔적이다. '진정한 고향'은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대상으로 초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 대상('진정한 고향')에 기입된 도달불가능성 자체가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고향'은 '진정한 고향'을 꿈꾸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는 한국 현대시사에서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 너머를 꿈꾸는, '진정한

52) "실제로 이데올로기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데에는 항상 유토피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토피아의 근본적인 기능은 반대하는 기능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투영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이다. 유토피아가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서 침몰해 버릴 위험이 있는 광기를 치료하려면, 이데올로기의 건전한 기능, 즉 역사적 공동체에게 이야기의 정체성(동일성)과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다른 곳을 꿈꿀 수 있으려면, 우리의 근원이 되는 전통들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야기의 정체성(동일성)과 같은 것을 이미 획득하고 있었어야 한다." Paul Ricoeur, 박영수・남기영 옮김,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409면. 리쾨르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토피아가 내포한 '위험'을 피하고 다른 곳을 꿈꾸기 위해서는 "근원이 되는 전통들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해석"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고향'(실재)에의 욕망/열정에 대한 충실성의 표지이자 눈부신 시적 실천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유토피아적 해방의 잠재성을, 그 미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백석과 이용악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충동과 노스탤지어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들의 시가 상실된 고향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틀과 정치적 올바름 안에서 해소되지 않고 의미를 초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시 텍스트에 감춰진(감춰졌다고 가정된) 의미가 아니라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운용 자체가 곧 주체의 무의식이다. 시 텍스트에서 의미를 초과하는 언어적 과잉과 잉여 향유, 반복 강박은 단순히 미학적인 표현의 부차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는 민족주의적 의미만으로는 포획되지 않고 초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며 그것은 '진정한 고향'이라는 실재에 대한 주체의 증상, 최소한 그 미학적 선택을 추동시킨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백석과 이용악의 시를 포함해 식민지 시기 한국 현대시의 고향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곽효환・이경수・이현승 편, 『이용악 전집』, 소명출판, 2015.
윤영천 편, 『이용악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18.
현대시비평연구회 편, 『다시 읽는 백석 시』, 소명출판, 2014.

감태준, 『이용악 시연구』, 문학세계사, 1991.
고형진, 「백석 시와 '옘음'의 미학」, 박노준・이창민 외, 『현대시의 전통과 창조』, 열화당, 1998, 214-215면.
곽효환,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2008.
김광기, 「멜랑콜리, 노스탤지어, 그리고 고향」, 『사회와이론』 통권 제23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173-203면.
김보덕, 「박정희 시기 재현 영화가 드러내는 향수의 욕망」, 『문화연구』 제1권 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12, 117-150면.
김종철, 「30년대의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김 철, 「프로레타리아 소설과 노스탤지어의 시공(時空)」,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김홍중, 「몽상공간론: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06.
_____, 「성찰적 노스탤지어」, 『사회와이론』 통권 제2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33-76면.
나명순, 「백석 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맹정현, 『멜랑꼴리의 검은 마술』, 한솔수북, 2015.
손미영, 「백석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학학회, 2012, 245-277면.
손철성,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 철학과현실사, 2003.
신용목, 「백석 시의 은유와 환유 구조 : 시 「모닥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3호, 한국시학회, 2012, 245-271면.
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북스, 2014.
양은창, 「이용악 시에 나타난 친일 성격」, 『어문연구』 제76집, 어문연구학회, 2013, 149-174면.
오태영, 「'향수(鄕愁)'의 크로노토프—1930년대 후반 향수의 표상과 유통」, 『한국어문학연구』 제49집, 동악어문학회, 2007, 207-234면.
유종호, 『한국근대시사』, 민음사, 2011.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이용악론」, 윤영천 편, 『이용악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18, 474-517면.
이경수, 「백석 시의 낭만성과 동양적 상상력」, 『한국학 연구』 제21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4, 49-85면.
_____, 『한국 현대시와 반복의 미학』, 월인, 2005.
이기성, 「'고독'이라는 병과 근대의 노스탤지어」,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277-302면.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이승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이효석, 「영서의 느낌」, 『조광』, 1936.11.
임철규, 『귀환』, 한길사, 2009a.
_____,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2009b.
정우택, 「이용악과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국경의 감각」, 『대동문화연구』 제104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391-422면.
차성환, 『멜랑콜리와 애도의 시학—백석·이용악·박용철의 시세계』, 국학자료원, 2018.
한아진, 「이용악 시의 서사성과 장소 체험—시적 표상 공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3.
Dowling, William C., 곽원석 역, 『『정치적 무의식』을 위한 서설』, 월인, 2000.
Evans, Dylan, 김종주 외 역,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2004.
Lacan, Jacques, 맹정현·이수련 옮김,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Mannheim, Karl,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2000.
Mumford, Lewis, 박홍규 역, 『유토피아 이야기』, 텍스트, 2010.
Ricoeur, Paul, 박영수·남기영 옮김,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Sargent, Lyman Tower,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교유서가, 2018.
Žižek, Slavoj,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Boym, Svetlana,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Levitas, Ruth, *The Concept of Utopia*, New York: Philip Allan, 1990.
Stewart, Susan, *on Longing: Narratives of the Miniature, the Gigantic, the Souvenir, the Collection*, Durham: Duke UP,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Utopian impulse and Nostalgia in korean Modern Poetry—With a Focus on the Poems by Baek Seok and Lee Yong-ak in the latter half of 1930—

Cha, Shung-Hwan*

Baek Seok and Lee Yong-ak poetry have shown a passion for the Real which is manifested by utopian impulse and will to realize the 'true hometown'. If Baek Seok's poetry matches the lost hometown of childhood and the 'true hometown' as 'Real', the poem of Lee Yong-ak differs from that of the other 'true hometown' by the inconsistency of the two.

Baek Seok establishes linguistic texture by designing the northen local village as the Pyongbuk dialect for an utopian space-time and he repeats the attempt to bring the feeling of fullness given by the hometown to reality. The lost hometown is positioned as the time and space of transcendental ideal through the spirit of restorative nostalgia. His wandering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he misses his hometown in reality, but rather to maintain his own desire for his hometown without returning home. The lost hometown has a status as transcendental ideal 'Real', and the poetic subject proves its existence while wandering around the blank space. At this point, The subject moves toward a passive 'Purification' way of preserving the reality of 'true hometown' in which 'I' is preserved by separating 'me' in a dichotomy of a lost hometown and a fallen 'world'.

The poetic subject of Lee Yong-ak poetry repeats leaving and returning to hometown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hometown. Through the repetition of leaving and returning home, the poetic subject clearly recognizes that his hometown is a devastated place such as wasteland, and he recognizes that this hometown is an object to leave. The lost hometown is a place to overcome in the mindfulness of the reflective nostalgia and is determined as a past to be taken to plan a new hometown. His wan-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derings are to find a new hometown behind the lost hometown. Instead of his biological hometown, Lee Yong-ak finds the possibility of a true hometown in his lost spiritual hometown 'Uragio' and dreams of realizing it in colonial reality. Lee Yong-ak poetry talks about reflective nostalgia where the possibility of 'true hometown' lost in the past projects future and it appears in a way of moving from lost 'hometown' to 'shining territory'.

Keywords: utopian impulse, nostalgia, restorative nostalgia, reflective nostalgia, hometown, Passion for the Real, Baek Seok, Lee Yong-ak.

접수일: 2019.07.01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